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 수상사례집

우리가 ○○인기관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우리가 ○○인교관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집

사례집 발간 안내

본 사례집은 외교부에서 주최한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 응모한 418건(수기 311건, UCC 107건)의 사례 중 분야별로 외교부 장관상을 수상한 13개의 우수 사례를 기록한 수상사례집입니다.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외교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공모전 사례의 일부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사례집은 공공외교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수상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공외교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뿐 아니라 공공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다양한 국가, 위치에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 공공외교관들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외교 분야에서 활동하고 그 사례들이 공유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공모전 운영 개요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은 공공외교를 통해 해외에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킨 경험에 대한 주제로 수기, UCC를 통한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업명**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 목적**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통한 국민들의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외교 활동 참여 활성화
- 주최** 외교부
- 공모주제** 공공외교를 통해 해외에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킨 경험
- 공모부문** 수기 / UCC
-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연령 및 거주국가 제한 없음)
- 접수기간** 2023년 9월 22일(금) - 10월 31일(화)
- 접수내역** 총 418건(수기 311건, UCC 107건)
- 시상내역** 대상 1팀 / 우수상 3팀 / 장려상 9팀

구분	개인부문		단체부문
	UCC	수기	UCC/수기
대상	1팀		
우수상	1팀	1팀	1팀
장려상	3팀	3팀	3팀

공공외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 개개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합니다.

공공외교의 유형

문화교류와 예술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	국제 교육 및 학생 교류
민간기업의 CSR 활동	글로벌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외국인 유치와 관광홍보

CONTENTS

대상	개인 수기 / 에티오피아	김소희, 김도진	8
우수상	개인 UCC / 르완다	심예찬	14
	개인 수기 / 미국	마민서	18
	단체 수기 / 중국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	24
장려상	개인 UCC / 탄자니아	백예진, 안제린	32
	개인 UCC / 동티모르	김정은, 신태용	34
	개인 UCC / 대한민국	오상우	36
	개인 수기 / 노르웨이	정연희, Pia Bergum	38
	개인 수기 / 멕시코	서효정	42
	개인 수기 / 레바논	정대영	46
	단체 UCC / 중국	북경대학교한인유학생회	50
	단체 UCC / 일본	토평고등학교	52
	단체 UCC / 방글라데시	코이카 방글라데시엔젤스	54
시상식 사진			58

“

저희는 부부 외교관입니다.
거창하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외교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심플하게 지어봤습니다.

”

대상



개인 수기 / 에티오피아
김소희, 김도진

우리가 바로 부부 외교단

대상

개인 수기 / 에티오피아
김소희, 김도진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꽤 멀리 위치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거기에서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8년째 살고 있는 김도진, 김소희 부부입니다. KOICA 봉사단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한 저희는 남편의 해외 태권도 보급의 꿈을 좇아 이곳, 에티오피아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타국 생활은 힘들겠지만, 아직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정말 힘이 듭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1분에 한 번씩 ‘차이나’라고 놀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중국과 한국은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어이 없는 질문도 받고... 그렇게 1년 정도를 지내다 보니 저희 부부는 우선 ‘에티오피아에 한국을 알려야겠다’는 공통된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 교실을 열어 한국어의 우수성도 알리고, 길거리에서 적어도 ‘니하오’라는 소리는 안 듣게 만들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교실을 하나 빌려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이라 몇 명이 올지 걱정했었는데, 160여 명이나 참석하는 바람에 매주 수업자료 복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라는 것도 알리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이지만 언어도 문화도 다른 국가라는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Sheri’s Korean Class’ (부제 Fun Fun Korean Class in Ethiopia)에서는 설날과 추석에 한복 입기, 제기차기, 세배하기 등등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 중 대다수가 K-POP 팬이다 보니 ‘랜덤플레이댄스’ 이벤트도 만들어 학생들이 마음껏 K-POP을 즐기고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남편 김도진 사범은 무료 태권도 교실을 열어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이 태권도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차후에는 각자 동네의 태권도 도장에 가서 훈련받아 에티오피아의 태권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고, 한 번씩 여성을 위한 ‘태권도 호신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여성들의 위생교육도 시작하려고 한국의 면 생리대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지금 교육 일정을 잡는 중입니다.

김도진 사범의 태권도 보급 활동은 비단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인접 국가인지 부티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부티에 방문하여 태권도 세미나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부티에서의 태권도 보급 및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진 사범의 아내, 저... 김소희는 한국어 교실 운영에만 멈추지 않고 유튜브, 틱톡 계정도 만들어 종종 한국어 수업도 올리고 에티오피아에서의 한국인의 생활에 관한 영상도 올리며 꾸준히 ‘한국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김치 만들기’ 수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김치’는 그 어느 나라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음식이라는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에티오피아의 여러 매체에 방영이 되어 가끔이지만 길을 걷다 보면 ‘코레아’라는 소리도 들곤 합니다. 김도진 사범은 방송에서 태권도를 홍보하였고, 저는 한국요리, 한국의 애견문화, 한글교실, 한국의 역사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한국 홍보를 하던 저희 부부는 에티오피아의 어린이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것이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여 한국의 지인분들과 에티오피아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전래 동화를 에티오피아의 언어인 암하리로 번역, 출판하여 여러 NGO, 에티오피아 국영도서관, 보육원 등등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3번째 책이 출판되어 좋은 단체를 선정하여 배부하는 중입니다. 에티오피아에 번번한 동화책이 많지 않아 우리 동화책을 나눠주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아이들 입에서 '코리아'가 절로 터져 나오고 있지요. ^^

우리의 동화책을 읽은 아이들이 훗날 그들의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이야기도 있단다~라며 우리 전래 동화를 들려줄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한국을 널리 알리려면 저희 2명의 힘은 보잘것없던 것을 알기에 2020년쯤 뜻이 맞는 한인분들과 의기 투합을 해 한인회를 결성... 작년 말에 '한인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 1,500여 명 정도가 방문하여 아주 크고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꼭 바자회를 열어달라는 부탁, 협박(?)을 받아 지금 열심히 제2회 한인 바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한국 음식과 한복 등을 에티오피아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며, 젓가락질 배우기, 제기차기 등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저희 부부의 외교활동은, 얼마 전 한국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에티오피아의 한 지방인 징카라는 곳에 우물을 판 일입니다. 김도진 사범의 제자가 사는 곳인데 깨끗한 물을 받으려면 어린아이들이 물통을 짊어지고 몇 시간을 걸어간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우물을 파 줘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여러 경험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우물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우려와 달리 한번에 물이 터져 나와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우물 완공식 때 징카에 갔더니 온 주민들이 '코레아, 코레아~'를 외치면서 반겨주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바람에 두 번째 우물도 뚫으니 말입니다. 징카 주민들이 물을 마시면서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길... 그렇게 해준다면 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저희 부부 나름의 외교활동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공공외교'를 이번에 글을 쓰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는 외교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수의 현지인들이라도 함께 잘 지내는 것,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점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공공외교'의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방향의 외교는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좋은 면들을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알리듯이 에티오피아의 좋은 면들도 한국에 알려야 외교의 시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바, 저희 부부는 오늘도, 내일도 한국에는 에티오피아를, 에티오피아엔 한국을 알리는 발걸음을 꾸준히 내디딜 것입니다.



 수상 후기 인터뷰

Q. 이번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A. 인스타 광고를 보고 이런 행사가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서 남편이랑 상의하여 저희의 일들을 모아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Q. 참여 소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상이라는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직까지 실감은 잘 나지 않는데 한국에 모처럼 와서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저는 공공외교가 어떤 특정한 대상의 일이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국민 하나하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Q. 이번에 공모전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나요?

A. 저희는 수기를 한 거라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서 크게 힘든 점은 없었는데 에티오피아 전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이게 다 날아가지 않을까 그게 조마조마해서 빨리 쓰려고 노력했어요.

Q. 태권도를 해외로, 특히 에티오피아로 전파를 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사실 저희 부부는 한국 국제협력단이라는 코이카 단원 출신입니다. 같이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2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해외에 또 어려운 곳 친구들을 위해서 뜻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과정에 에티오피아는 특히 또 우리 한국전쟁의 전투병을 참전해 준 또 고마운 나라였다는 점에서 선택했고요. 아마 코이카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마 자연스럽게 공공외교에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Q.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광인 대상의 수상자이신데, 수상의 팁 같은 것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A. 글썄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자체가 환경이 그렇게 타국에 비해서 좋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저희들이 겪었던 어떤 일상들을 잘 기록을 해 뒀다가 좀 재미있게 정렬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퇴직이나 은퇴를 하면 재미나게 책으로 써보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Q. 수상자님에게 공공외교란 무엇인가요?

A. 공공외교가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그 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다시 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공공외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부부 외교관입니다. 일단 부부이기도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창하지 않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외교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심플하게 지어봤습니다.



“
저는 친구 같은 외교관입니다.
현지 아이들, 교사들, 또 동료들과 함께
친구처럼 고민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우수상

 개인 UCC / 르완다
심예찬

르완다 시골마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우수상

개인 UCC / 르완다
심예찬



작품 설명

한국으로부터 후원받는 아이들이 한국을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 특히 르완다 아이들과 수상자가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르완다어로 'Twese' 한국말로는 '함께'라는 단어를 주제로 선정하여 UCC 작품으로 출품

수상 후기 인터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안녕하세요. 르완다에서 살고 있는 심예찬입니다. 저는 월드프렌즈 코리아 코이카 NGO 더 멋진 세상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참여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A. 공모전 홍보 포스터를 코이카 SNS에서 보고 봉사단원 친구들이 해보라며 추천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공공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모전 홈페이지를 보니까 정부 사업 같은 거창한 공공외교가 아닌 개인도 공공외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하는 활동도 공공외교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에 공모전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나요?

A. 일단 제가 현장에서 자주 있다 보니까 현장 사정상 촬영을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현지인분들께 촬영을 맡기는데요. 현지인분들이 하늘만 많이 나오게 찍거나 바닥만 많이 나오게 찍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편집하는 데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우수상을 수상하시게 되었는데 수상에 대한 팁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담고, 흐름을 6하 원칙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2분이라는 짧은 영상에 제 스토리를 담으려면 가장 강렬한 흐름과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앞으로 공공외교를 위해 활동이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A. 저는 현재하는 봉사단원 활동이 끝나도 현장에서 국제 개발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봉사단원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국제 개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아프리카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국제 개발의 매력도 알게 됐고, 공공외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국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의 필요들도 보게 됐고, 그런 필요들을 채워서 아프리카 현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있고 싶습니다.

Q. 수상자님에게 공공외교란 무엇인가요?

A. 나에게 공공외교란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Q. 'OO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OO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단순하지만 '친구 같은 외교관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지 아이들, 교사들, 또 동료들과 함께 친구처럼 고민도 기쁨도 나누고 싶습니다.



“

저는 24시 외교관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저는 한국 이미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24시 외교관입니다.

”

우수상



개인 수기 / 미국
마민서

큰 변화를 만드는 작은 실천

우수상

개인 수기 / 미국
마민서

공공외교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동아리에 가입하여 펜팔 친구들과 소통하며 한국 바로 알리기를 시작한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만의 공공외교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공외교는 바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한국 오류 시정하기’ 활동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여러 영상 매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관련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매체와 오류 내용 때문에 모든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동안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 필수 교재 오류 시정〉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인 하버드 경영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우리나라 역사 왜곡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버드 출판부에서 구매한 〈Korea〉라는 필수 강의 교재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물론, 일제강점기 시대와 관련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교수진이 직접 집필한 이 책에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일제강점기)기간에 한국은 산업화하였으며 근대화되었다.” 등의 설명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재는 전 세계 다양한 대학에서 주 교재 및 참고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한국과 관련한 역사 왜곡을 사실로 받아들일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집필한 하버드 교수진 두 분께 메일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메일에는 ‘한국에는 아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산업 되었지만, 이는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2년 9월에 시정 요청 메일을 보낸 뒤 약 10일 뒤에 담당 교수진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Korea〉 공동 저자인 Reinhardt 교수는 “당신의 피드백에 감사하며, 교재의 내용이 수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5개월이 지난 2023년 2월, 하버드 출판사 사이트에서 개정된 〈Korea〉 교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 전 교재와 비교를 통해 한국사,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오류가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서술은 “한일 간 외교 및 경제 관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로 수정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인프라가 향상된 것은 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동해 (East Sea)’와 ‘독도 (Dok)’가 표기된 지도가 추가되는 등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오류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버드 대학 교재의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버드 재학생도 아닌 내가 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수정해 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레 몇 페이지에 달하는 메일을 작성하고, 이후 답장을 받고, 수정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여 오류가 최종적으로 수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그 어느 순간보다 뿌듯했고 기쁩니다. 개정된 교재를 통해 전 세계 다양한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대학 및 교육기관 내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시정 활동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셔널지오그래픽 교재 오류 시정>

세계 여러 나라의 교재, 웹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박물관에서도 참고 자료로 사용되는 게티이미지에서 한국의 부채춤과 한복을 중국 문화로 표기한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었지만,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무용수들이 춘절을 기념하기 위해 전통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5년도부터 게티이미지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세계적인 출판사인 네셔널지오그래픽에서 발간한 영어 교재에도 실렸습니다. 사진과 설명만 보면 한복과 부채춤이 마치 중국의 전통 복장과 문화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오류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게티이미지와 네셔널지오그래픽 출판사를 대상으로 오류 시정 서한을 작성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통 복장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사진 속 복장은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된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이며, 부채춤은 1954년 김백봉 부채춤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설명을 담았습니다. 게티이미지와 네셔널지오그래픽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달라는 서한을 전송한 지 약 한 달 후, 네셔널지오그래픽으로부터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무용수들이 한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콜린스 사전 오류 시정>

옥스퍼드 사전, 콜린스 사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전이며, 영향력 있는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사전입니다. 이러한 사전에 한국과 관련한 오류들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와 콜린스를 비롯한 15개의 영어사전에 ‘Korea’를 검색하여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11개의 사전에 한국과 관련한 오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오류는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이었고, “‘Korea’는 한글로 ‘조선’이라 한다.”와 같은 오류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오류가 심각했던 사전은 바로 콜린스 사전이었습니다. 콜린스 사전은 한국에 대해 “한국은 일본해와 황해 사이에 위치한 반도이다. 1876년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항구가 개방될 때까지 중국(만주)의 속국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설명은 한국을 검색하는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오류를 발견했던 사전에 시정 메일과 사전 이용자 피드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주기적으로 ‘Korea’를 검색해 보며 시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콜린스 사전에서 “중국의 속국”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전에서 오류 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콜린스 사전 측에 보낸 내용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직접 오류를 찾고 잘못된 내용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과정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오류 시정 활동은 물론, 아직 등재되지 않은 한국과 관련한 용어들을 등재해달라는 피드백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를 찾아보는 외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판소리, 갯, 삼계탕 등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전에 등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외교의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오류 시정 활동을 꾸준히 지속한 결과, 박물관과 미술관, 책, 영상 등을 볼 때, 한국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머무를 때, 영국 해양박물관에 동해 표기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고, 미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 둔 박물관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시정할 수 있는 공공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처음 공공외교를 접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유료 이미지 판매 사이트 오류 시정을 시작으로 저만의 공공외교를 시작한 지 어느덧 7년이 지난 지금, 수백 통이 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답장을 받고 오류 시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지금까지 하버드대학교, 내셔널지오그래픽, 콜린스 등 여러 기관의 오류를 시정하였습니다. 이런 오류 시정 성공의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아직 수정되지 않은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전 세계에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대한민국 청년이 되고자 합니다.

수정 전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changed dramatically, as China's Qing Dynasty declined and Japan modernized rapidly. After winning the Sino-Japanese War in 1895, Japan started to gain control over Korea. Following its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a decade later, Japan annexed Korea in 1910, deposing the Joseon king. During the subsequent 35 years, Japanese administrators banned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while integrating the Korean economy with that of Japan. Japan's heavy-handed approach toward its Korean colony, which intensified during the World War II, continued to cast a shadow over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to the 21st century. Yet during this period Korea became increasingly industrialized, and transportation and power infrastructure improved. Education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ystems were also modernized.

(시정 전)
“(일제강점기)기간에 한국은 산업화하였으며 근대화되었다.”

수정 후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changed dramatically, as China's Qing Dynasty declined and Japan rapidly modernized in emulation of the European model during the so-called Meiji Restoration.¹⁸ After winning the Sino-Japanese War in 1895, Japan turned its attention to conquering Korea and, following its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a decade later, annexed Korea and deposed the Joseon king in 1910. During the subsequent 35 years, Japanese administrators sought to assimilate Korea to the Japanese Empire by force, subjecting its culture and economy alike.¹⁹ Though infrastructure on the peninsula improved during this period, along with administrative capacity and some industries, developments were principally aimed at benefiting Japanese interests.²⁰ Japan's heavy-handed approach toward its Korean colony, which included harrowing regimes of forced labor, continued to cast a shadow over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to the 21st century.²¹

(시정 후)
“일제강점기 동안(한국의) 인프라가 향상된 것은 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resolved the issue.¹²² Tensions continued to haunt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ough Yoon had made a point of seeking a “Grand Bargain” to heal historical wounds.¹²³

<내용 추가 사항>
“한일 간 외교 및 경제 관계에서(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English: Korea American: Korea Word lists Trends In other languages

Definition of 'Korea'

Korea

in British English

(ka ri ə) (k) (i) (ə) (k) (i) (ə)

NOUN

a former country in E Asia, now divided into two separate countrie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Korea occupied the peninsula between the Sea of Japan (East Sea) and the Yellow Sea: **an isolated tributary state of Manchu China for three centuries, until the opening of ports to Japanese trade in 1876**; became officially independent of China in 1895 and declared an empire in 1897; annexed to Japan in 1910 and divided in 1945 into two occupation zones (Russian in the north, American in the south), which becam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1948

Japanese name (1910–45): Chosen. See North Korea, South Korea

Collins English Dictionary. Copyright © HarperCollins Publishers

콜린스 사전 시정 전 “1876년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항구가 개방 될 때까지 중국(만주)의 속국이었다.”

English Dictionary Grammar

Definition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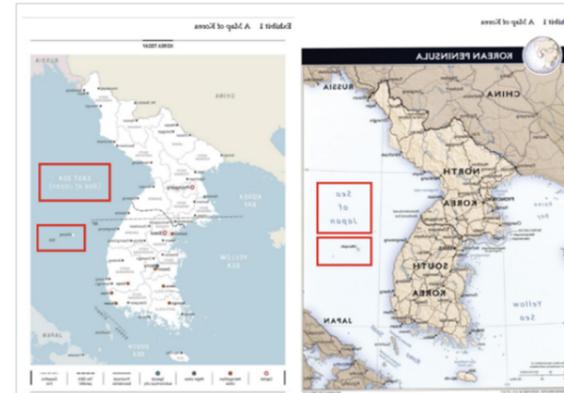
Korea

in American English

(ke ri ə) (k) (i) (ə) (k) (i) (ə)

peninsula & country in E Asia, extending south from NE China: divided (1948) into a) **Korean People's Democratic Republic (North Korea)** occupying the N half of the peninsula: 47,399 sq mi (122,762 sq km); pop. 23,030,000; cap. Pyongyang, and b)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occupying the S half of the peninsula: 38,326 sq mi (99,263 sq km); pop. 43,412,000; cap. Seoul

시정 후 해당 내용 삭제



<독도, 동해 표기 시정 전후>

수상 후기 인터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마민서이고, 현재는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A.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 오류 관련 시정 활동을 시작해 오면서 인턴을 하고,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공공외교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례를 우수 사례 공모전에 출품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외교에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Q. 참여 소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지금까지 해온 한국 오류 시정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뿌듯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공공외교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이번에 공모전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나요?

A. 여기 사례 공모전에는 실제로 시정이 된 사례들만 담았는데 수백 통의 메일을 보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들도 어떻게 하면 잘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공공외교를 위해 활동이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에서 한국과 관련한 설명이라든지 템플릿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것들을 또 시정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나아가서 공공외교에 대한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아직 그런 구체적인 꿈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지금부터 최대한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Q. 수상자님에게 공공외교란 무엇인가요?

A. 공공외교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외교라는 단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공공외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Q. '○○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24시 외교관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메일로 오류 시정을 하는 활동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저는 한국 이미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24시 외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희는 민간 문화 외교관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속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외교관입니다.

”

우수상



단체 수기 / 중국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

꿈을 안고 세상으로

우수상

단체 수기 / 중국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

2008년 중국 북경에서 선생님도 없이 노래를 부르던 10여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비록 서툴고 다듬어 지진 않았지만 아이들의 맑은 소리와 순수한 모습이 눈에 들어 왔다. “애들아! 이 노래 아니?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며~ 몇 곡의 동요를 불러주었다. “아니요 몰라요”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면 거의 알고 있을 법한 노래였다.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예술인으로서 나의 마음에 웬지 모르는 안타까움과 아이들에 향한 마음이 밀려들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열악한 문화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타국에 사는 어려움으로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한국인으로서 문화가 다른 중국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주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한국인이라는 자긍심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10명의 아이들은 1~2달 만에 30명이 되었고 1년 후,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자원봉사로 드디어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되었다.

우리 합창단은 좋은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을 부르며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덕분에 가슴속에 사랑이 많았다. 2010년 ‘중국 고아원 돕기 연주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맹인 고아원, 장애인 고아원을 방문하여 놀이와 연주를 통해 아이들과 친해졌다. 특히 맹인 고아원 안에 있는 벤엘 맹아 합창단 아이들과의 만남은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북경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의 아이들은 외지인이라서 북경호구라는 북경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식 학교가 아닌 농민 공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합창단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농민공 합창단’을 만들어 음악교육을 시작했다. 농민공 아이들은 배운 노래를 우리 합창단과 함께 연주하며 기쁨의 순간들을 만끽했다. 봉사는 중국을 넘어 캄보디아까지 이어졌다. 2016년 ‘씨엠립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여 450여 명의 빈민 결식아동들을 위해 ‘태권무를 비롯하여 많은 노래를 불러주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축복하였다. 합창단원들은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급식 배식과 청소, 설거지를 하며 작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였다. 세상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아이들, 스스로 환경을 선택할 수 없는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 합창단 아이들도 점점 성숙해가고 있었다.

2017년 여름, 한 저명한 중국 음악가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북경소년소녀합창단이 중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봉사와 연주활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실력 있는 합창단이라는 것이다. 그 순간 그동안 중국의 뛰어난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했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중국 음악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과 앞으로 공연을 같이하자는 제안도 했다. 우리 합창단은 후원 없이 십시일반 물질과 마음으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터라 참으로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해외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알 수 없는 아픔이 있다. 우리가 만난 아이들 중에는 부모를 따라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을 열지 않았던 아이들, 다문화가정에서 자라서 한국말이 서툴러 한국인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아이들, 사회성이 부족해 혼자만 놀던 아이들, 정서적 장애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아이

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합창을 통하여 회복되고 자신감을 얻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봉사 속에서 기쁨을 얻고 재능을 발견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화음을 맞추며 서로 돕고 배려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감동의 사건들이 계속 이루어졌다.

이런 개인의 소중한 경험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문화외교사절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2013년 정기연주회에서 주중 대한민국 대사님의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음악을 통해 교민사회에 많은 기쁨을 주고 한·중 문화교류에도 크게 기여한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그 당시 우리 합창단은 ‘한·중 수교 20주년 경축 리셉션 초청연주’뿐만 아니라 북경시 인민정부 외사 판공실이 주최하는 ‘국제어린이날 행사’와 ‘중국 북경수도사범대학 합창단과 한국 청주시립 합창단 합동 공연’, ‘제15회 농심 신라면 배 세계 바둑최강전 개최식 축하연주’, ‘제2회 국제 청소년 문화 예술제 환동베이징’ 등에 참가하며 대한민국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었다. 이 활동은 계속되어 우리 합창단은 ‘2012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리셉션’에 이어서 ‘2022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에도 초청되었다. 어느덧 한·중 관계 30년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함께하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 서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청소년들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한·중 수교 20주년’에 참석했던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한 아이는 고3이 되어 30주년 행사도 참여하여 “이 땅의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며 실제적 외교 현장 속에서 외교관을 꿈을 꾸었고 졸업 후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였다.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진정한 외교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합창단은 점점 성장하여 2014년에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공연장인 국가대극원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기념 연주회에 중국국립오케스트라와 한국의 ‘아리랑’과 중국의 ‘위허니’를 협연하였다. 연주 후 중국 청중들의 박수와 터져 나오는 함성은 우리 교민들에게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게 해주기 충분했다.

문화교류는 중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태국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두 나라의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지 청소년들을 만났다. 2016년 캄보디아에서는 “프놈펜호산나학교”를 방문하여 “마음의 노래를 캄보디아에서”라는 주제로 학교 오케스트라, 합창단과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또한 양국 청소년들이 함께 연습하며 현지어로는 ‘주를 위한 캄보디아’ 한국어로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조’를 부르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2017년 태국 치앙마이 반홍 티라칸 학교에서 열린 ‘한국과 태국 청소년의 문화 교류’에서는 현지 15개 학교 학생 800~900명, 군수, 군 경찰서장, 도장학사, 학부형 위원회 대표, 학교장 15명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 공연은 한·태 문화교류를 넘어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술, 담배와 게임과 같은 중독 문화를 배격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한 공연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활발히 청소년문화교류를 하고 있을 즈음, 2020년 코로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2021~2022년 두 번의 랜선 콘서트를 통해 ‘한·중 청소년문화 교류’를 이어갔으며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화면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를 위로하였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대면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합창단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D-100일 기념행사’에 초청되었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 합창단들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축하하며 축제의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대면 공연이라서 연주의 기쁨이 컸을 뿐만 아니라 음악으로 하나 되는 문화 예술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합창단 창단 시절 아이들에겐 꿈이 있었다 “선생님 합창단 하면 TV에 제 얼굴이 나올 수 있나요?” 장난스러운 한 아이가 물었다 “그럼 TV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알리는 최고로 멋진 합창단이 될 거야. 함께 해보지 않겠니?” “네 하겠어요” 단원들과 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중국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2013년 ‘제2회 국제청소년문화예술제 환동베이징’에 참여하여 최고상을 받았고, 2015년 ‘제6회 중국 신장국제청소년예술제’에서는 ‘아리랑’을 연주하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를 소개하였다. 그것은 각각 중국 CNTV, 신장TV에 방송되었다. 이 공연은 모든 출연진들이 3박 4일 합숙을 하며 예술제를 준비했는데 예술제 마지막 날 파티에서 해외의 청소년들이 싸이의 “오빤 강남스타일”을 외치며 함께 춤을 추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가요를 따라 부르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실감했다. 한국에서는 KBS TV 생방송, KBS 라디오를 통해 합창단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2014년 KBS 1TV 새해맞이 특별 생방송 ‘아리랑 코리아’에서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멀리 고국에까지 전해졌다.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이 TV를 통해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워 하셨다. 14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과 한 약속은 이미 지켜졌고 더 흥미로운 약속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합창단에는 두 부모 중 한 부모가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대만,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문화 아이들과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은 합창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정서를 느끼며 한국인으로 다양한 공연에 참여한 경험으로 서서히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18~2019년 ‘8.15 광복절 기념 합창 축제’에 참가하여 각국의 재외 동포합창단 및 국립합창단과 연주를 하였다. 그때 국적은 한국이지만 다문화인 한 고등학교 남학생은 이 연주회를 통해 한민족의 화합을 경험하였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통일전망대에서 북한땅을 바라보며 한국역사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왜 군대를 가야 하는지 몰랐던 이유와 막연히 두려웠던 군입대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어 이제는 군대에 갈 수 있겠다고 하였다. 지금은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멋진 대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재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은 북경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초, 중, 고 20여 개 학교 7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12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총 120회 이상의 공연과 해외 국제예술제 및 합창제에 10회 참여하였고, 국내외 예술단체들과 20회 이상 연합공연을 하며 음악을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사절단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봉사와 나눔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과 소통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 교류를 통해 지경을 넓혀 문화적 소양과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올바른 세계관을 지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오늘의 이 멋진 합창단이 있기까지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큰 무대에서는 당당하며 작은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는 단원들, 눈물과 봉사로 함께 걸어온 선생님들,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으로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준 주중한국문화원, 격려와 후원자가 되어준 북경한국인회를 비롯한 교민들, 꿈과 희망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들. 우리가 진정한 외교관이다!



수상 후기 인터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 단장 정영진입니다. 2009년 중국 북경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합창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단장으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출품하신 당선작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해외에 거주하면서 여러 다른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악, 특히 합창을 통해서 자기들의 꿈을 키워 나가고 또 서로의 꿈을 격려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만들어 가는 청소년 문화 외교 이야기입니다.

Q. 이번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A. 그동안 저희들의 활동을 함께한 합창단의 학부모님께서 이 공모전을 보시고 우리의 활동과 너무 흡사하다며 한번 응모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참여 소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15년 동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과 그 눈물과 땀을 흘려가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중요성,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며 내 조국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많이 느껴서 그 조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소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그 소통의 도구로 문화 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문화외교 역할을 잘 수행했구나.'라는 자긍심과 그리고 뿌듯함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Q.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나요?

A. 저희의 활동들 가운데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순간들과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타내는 소리들을 표현 한다는 것이 보는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될까? 하는 걱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Q. 수상자님에게 공공외교란 무엇인가요?

A. 나에게 공공외교란 세계여행이다. 음악이라는 배낭을 메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세계를 향해 떠나는 여행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나는 민간 문화 외교관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속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그런 외교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려상



개인 UCC / 탄자니아
백예진, 안제린



개인 UCC / 동티모르
김정은, 신태용



개인 UCC / 대한민국
오상우



개인 수기 / 노르웨이
정연희, Pia Bergum



개인 수기 / 멕시코
서효정



개인 수기 / 레바논
정대영



단체 UCC / 중국
북경대학교한국유학생회



단체 UCC / 일본
토평고등학교



단체 수기 / 방글라데시
코이카 방글라데시엔젤스

공공외교 코이카 봉사단

장려상

개인 UCC / 탄자니아
백예진, 안제린



작품 설명

탄자니아에서 아이들에게 영상편집 및 한국 문화 수업을 가르쳐주며 봉사하는 활동을 편집하여 UCC로 출품



저희는 의미 있는 외교관입니다.
갈피를 잘 잡지 못하던 시기에 탄자니아에서 봉사하며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두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느껴져서 의미 있는 외교관이라고 지었습니다.



수상 후기 인터뷰

Q. 참여 소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영상을 제작하면서 탄자니아에서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끼고 뿌듯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Q. 앞으로도 공공외교를 위한 활동이 계획되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A. 탄자니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1년 더 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하여 앞으로도 탄자니아에서 봉사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Q. '○○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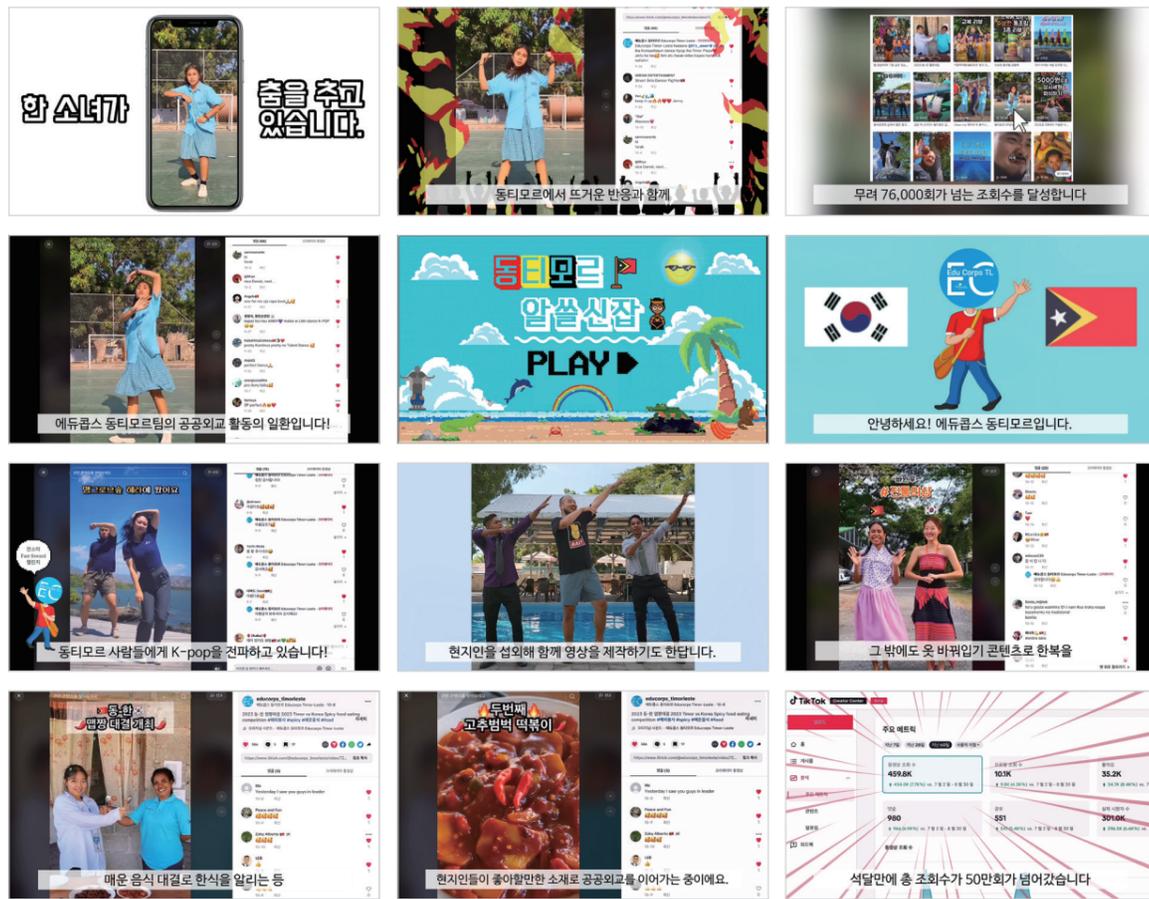
A. 의미 있는 외교관이다. 갈피를 잘 잡지 못하던 시기에 탄자니아에서 봉사하며 스스로의 삶과 행동과 생각에 의미를 두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느껴져서 의미 있는 외교관이라고 지었습니다.

(대리수상자 백동훈)

코이카 봉사단 에듀콥스! K-POP 챌린지 전파

장려상

개인 UCC / 동티모르
김정은, 신태용



작품 설명

동티모르에 한국을 알리고, 세계에 동티모르를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매개로 현지인들과,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디어 영상 활동 진행한 내용을 UCC 작품으로 출품

“

저희는 옆집 사는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라고 해서 별다른 사람이 아닌
옆집 사는 사람처럼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공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

수상 후기 인터뷰

Q. 참여 소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NGO 봉사단 직원분들의 원래 활동은 유튜브 영상 촬영하는 게 아니고 현지 아동분들에게 교육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직원분께서 자발적으로 동티모르를 외부에 알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셔서 콘텐츠팀을 새로 조직하여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요. 공공외교라는 단어 자체를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여태까지 해온 활동들이 공공외교이고, 공공외교에 이바지하는 활동들을 진행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Q. 앞으로도 공공외교를 위한 활동이 계획되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A. 저희 봉사단원 분들께서 틱톡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등으로 소통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동티모르를 알리는 활동이 처음이지만 재미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계정을 쪽 이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지 어떤 방법이 되든 SNS를 활용하여서 이런 공공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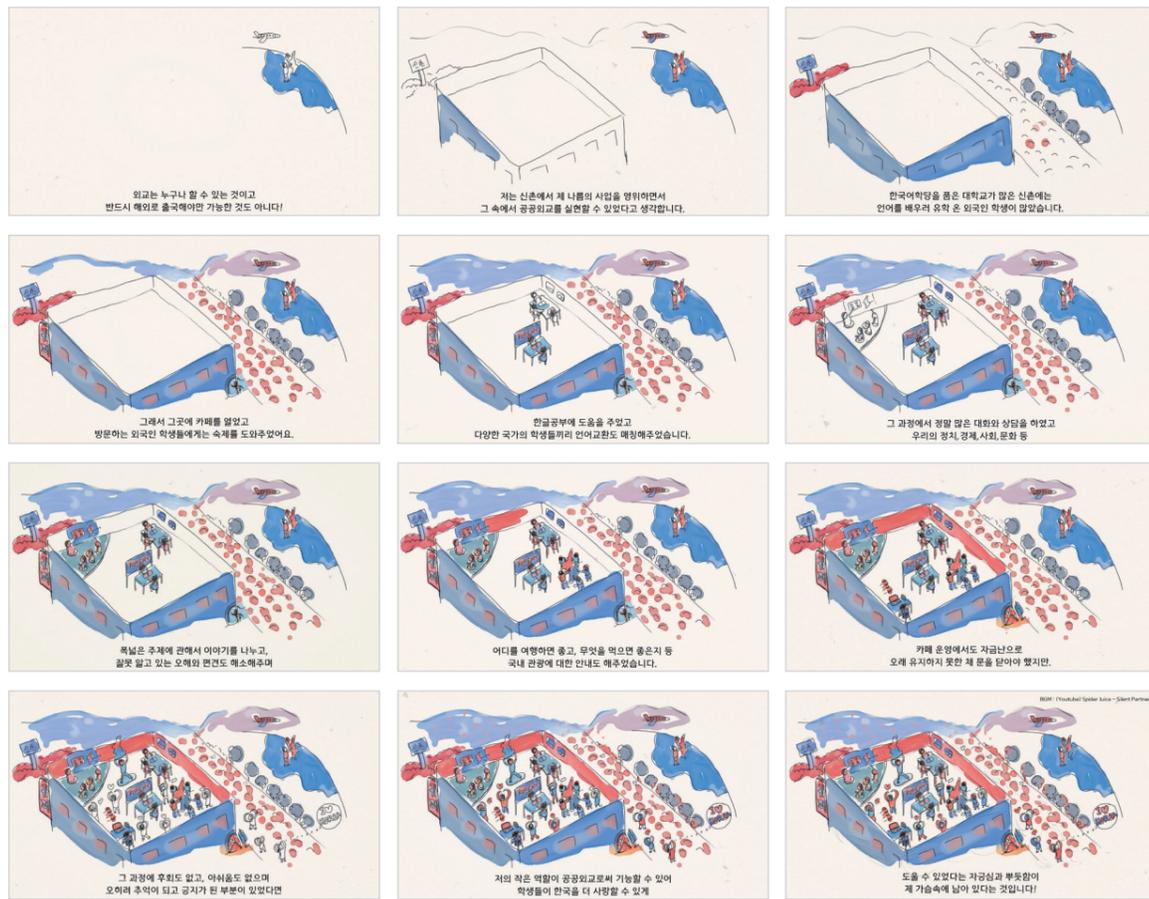
Q. ‘○○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희 단원분들은 ‘옆집 사는 외교관’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쭙봤더니 외교관이라고 해서 별다른 사람이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아닌 옆집 사는 사람처럼 친근하고 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공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언어교육

장려상

개인 UCC / 대한민국
오상우



작품 설명

신촌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숙제 도움, 문화에 관한 교류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활동을 UCC 작품으로 출품



저는 이웃 외교관입니다.
누구라도 이웃같이 편하게 물어보고 다가올 수 있는
외교관의 모습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은 외교관,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이랄까요?



수상 후기 인터뷰

Q. 출품하신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신촌에서 작은 유학생 카페를 운영하면서 짧은 기간에 정말 평생 만날 외국인들 다 만났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가로부터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은 호기심도 많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깊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던지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물어보고 탐구하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잘못 알고 있던 것도 있었고, 오해나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바로잡아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바른 인식과 긍정에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바로 그때, 그 모습이 제 삶에서의 공공외교가 아니었나 돌이켜보면서 제작하였습니다.

Q. 참여 소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공공외교를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외국인과 마주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짐과 생각이 곧 대한민국이기에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바르게 비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이웃 외교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이웃같이 편하게 물어보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외교관의 모습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은 외교관,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이랄까요?

'fra SEL til SVG 2023' (서울에서 스타방에르까지)

장려상

개인 수기 / 노르웨이
정연희, Pia Bergum

해외에 나와 산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노르웨이의 근간 산업인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견인 도시 스타방에르로 옮겨와 산 지는 7년이 넘었다. 해외에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한국과 내가 사는 곳의 연결 고리가 되기를 늘 희망했다.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이자 우리 회사의 CEO인 Pia Bergum도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노르웨이인으로 뿌리인 한국을 사랑하고 늘 큰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둘이 함께 일하게 된 지 몇 년이 흘렀고, 우리는 언젠가 이 도시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이벤트를 열자고 다짐하고는 했다. 그러다 올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는 전 세계를 휩쓸었고, 노르웨이도 그 예외는 아니다. 노르웨이에서도 한국 음식, K-pop, K-beauty, 태권도, 자동차 등 많은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다양한 한국 전통 및 현대 문화와 한국의 선진 제품들을 경험하고 있다. 또,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는 남녀노소,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문화적 강점이 있기에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누구나 편하게, 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스타방 에르에 선보이는 첫 번째 한국 문화 페스티벌인 만큼 한국에서 스타방에르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온다는 것을 상정하고 싶어 페스티벌 명을 서울에서 스타방에르까지라는 뜻의 'fra SEL til SVG'로 이름을 지었다. SEL은 서울의 항공 코드이고 SVG는 스타방에르의 항공 코드이다.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우리는 전통과 현대 문화뿐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제품들도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국과 노르웨이의 여러 업체, 기관, 아티스트들과의 조율을 통해 콘서트, 한식, 공예, K-pop 댄스, 태권도, 영화 상영, 사진전, 팝업 스토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포함할 수 있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에도 조언을 구했다. 마침 대사관에서 올해가 정전 70주년이라는 조언과 함께 한국 전쟁 당시 노르웨이가 NORMASH라는 육군 이동 외과 병원을 꾸려 총 623명의 노르웨이 군인과 의료진을 한국 전쟁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파견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다. 대사관에서 정전 70주년 기념 NORMASH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셔서 우리 행사에 사진전을 선보일 수 있을지도 여쭙보았다. 70년 전 우리는 노르웨이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로부터 많은 도움이 필요로 했던 국가였지만, 모두의 도움과 국민의 힘으로 지금은 다양한 분야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도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사관에서는 수도인 오슬로뿐 아니라 스타방에르에서도 사진전을 하는 데 흔쾌히 동의하시어 우리의 행사는 더욱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기획을 마칠 수 있었다.

페스티벌은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시기로 2023년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특히 가장 많은 행사가 집중되었던 9월 23 - 24일은 참고형 다목적홀을 빌려 K-pop 댄스, 태권도 시범, 정전 70주년 맞이 NORMASH 사진전, 복주머니 만들기, 보자기 포장 워크숍, 한글 이름 쓰기, 한식 푸드코트, 한국 제품 팝업 스토어 등을 다채롭게 진행했다. 또 행사가 열린 다목적홀 옆의 레스토랑에서는 한식 레스토랑과의 협업으로 불고기, 닭강정, 잡채, 불고기피자 등을 선보였다. 그 외의 기간에는 김치 만들기, 삼각김밥 만들기 같은 쿠킹 클래스, 한국 영화 상영 등을 진행했고,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한국 인디 록 밴드인 새소년이 유럽 투어 기간에 맞물려 북유럽에서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행사가 있었던 23 - 24일간에는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고, 푸드코트의 음식 들은 양일 모두 일찍이 매진되면서 한국 음식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특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사진전에서부터, 전통문화, 현대 문화, 한국 제품 등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행사를 준비했기에 주말 동안 가족 단위의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었다. 행사를 둘러보는 사람마다 본인이 또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 한국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낌없이 표현해 주기도 해, 행사를 주최하는 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다. 어린 친구들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K-pop 스타들의 이름을 한국어로 적어 보며 기념으로 간직해 가기도 했고, 온 가족이 함께 푸드코트에 둘러앉아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정전 70주년 기념 NORMASH 사진전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모습 등, 그 어느 장면 하나하나 기억에 남지 않는 순간이 없다.

주말 이틀간의 가장 큰 행사를 마치고 평일에 꾸려진 쿠킹 클래스에서는 한국인 입양인들을 비롯해 현지인들이 한국 음식을 배우러 왔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김치를 만드는 클래스를,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삼각김밥을 만드는 클래스를 열었는데, 노르웨이 국영 방송 NRK와 지역 방송 TV VEST 등에서 취재를 나올 만큼 인기가 좋았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한국 인디 록밴드 새소년이 피날레를 장식해 주었다. 스타방에르로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한국 가수였고, 새소년에게는 북유럽 국가에서 연 첫 콘서트였기에 서로에게 깊은 의미로 남았다.

우리가 꾸렸던 페스티벌 fra SEL til SVG(서울에서 스타방에르까지)는 페스티벌에 방문한 방문객들을 포함해 행사에 참여한 업체와 기관, 협업 파트너와 스폰서 업체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괄목할 만한 점은, 이 행사에 많은 노르웨이인들과 노르웨이 기업들이 협업 파트너로 함께 했다는 점이다. K-pop 댄스팀과 태권도팀은 노르웨이 스타방 에르 현지의 Steps Dance studio와 스타방에르 태권도 클럽이 참여해 주었고, 복주머니 만들기와 보자기 포장 워크숍은 현지 디자이너가 재활용 천을 이용해 한국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다. 또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노르웨이 K-beauty 쇼핑몰이 한국 화장품을 판매했고, 기아 노르웨이 현지 법인에서는 노르웨이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기아의 신형 전기차 모델들을 전시해 한국 제품의 이미지를 한 층 더 제고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한국의 콘텐츠를 이용해 현지 업체들이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선보일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행사를 주최한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노르웨이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통해 현지인들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국에 애정은 더 깊어지지만 이를 더 확장할 방법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공외교라는 것을 의식하고 이 페스티벌을 꾸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했던 이 일련의 활동이 공공외교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바른 시각으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개인적인 다짐도 하게 된다.

우리의 첫 번째 한국 문화 페스티벌인 fra SEL til SVG는 그렇게 훌륭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문화 교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볼 생각이다. 그렇게 노르웨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하고 반대로 한국이 노르웨이에 대해 더 알아가다 보면, 물리적으로는 7,961km나 떨어져 있는 두 나라가 마음으로는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myhatt PRESENTERER 23. - 29. september
fra SEL til SVG
Koreansk kulturfestival
på The Garden og Eastside-hallen
Mat • Film • Konsert
Art & Craft • Dans
Samtaler
Taekwon-Do
Fotoutstilling
Pop-up shop

STORHUG BYDELSAVIS Side 7
Første koreanske kulturfestival
-Ligningsbølgen var det over 1000 mennesker innom, så vi er veldig fornøyd og har fått mange hyggelige tilbakemeldinger både fra samarbeidspartnere og publikum. Vi vil absolutt gjenta festivalen til neste år, forteller Pia Bergum.

myhatt PRESENTERER 23. - 29. september
fra SEL til SVG



“저는 문화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외교관입니다. 문화를 통해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교류를 돕는 사람이고 싶어서 그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수상 후기 인터뷰

Q. 출품하신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지난 9월 제가 살고 있던 도시 스타방에르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 페스티벌인 'fra SEL til SVG'를 진행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K-POP댄스, 태권도 시범, 정전 70주년 NORMASH 사진전, 보자기 포장 워크숍, 한식 푸드코트, 한국 제품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행사장 옆 레스토랑에서는 한식 레스토랑과의 협업을 통해서 한국음식을 선보였고, 김치 만들기, 삼각김밥 만들기 등 쿠킹클래스도 진행하였습니다.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에는 한국 록밴드인 '새소년'이 북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단독콘서트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었습니다. 페스티벌에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었던 행사였고, 행사를 준비했던 과정과 개인적인 소회 등을 출품한 에세이에 담아보았습니다.

Q. 앞으로 공공외교를 위해 활동이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올해 개최했던 한국 문화 페스티벌이 지역사회 내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내년에도 두 번째 한국 문화 페스티벌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한국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노르웨이의 다양한 지역사회의 영역이 협업해서 한국문화를 모두가 편하고 즐겁게 즐기고, 한국 문화를 조금 더 다각도에서 배워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Q. '○○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나는 문화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외교관이다. 문화를 통해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교류를 돕는 사람이고 싶어서 그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멕시코 최대 공공도서관에 한국도서 기증

장려상

개인 수기 / 멕시코 서효정

2006년 개관한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은 37,000㎡의 토지에 건설된 대형 도서관으로 멕시코시티를 대표하는 공공 도서관 중 하나이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연상시키는 철제 구조물의 독특한 내부 인테리어와 미래적 건축디자인으로 유명하며, 테오티우아칸 유적지, 치첸이사 유적지,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4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문화공간이다.

이 도서관에서 한국어로 도서관 가이드 투어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본 것은 2023년 초의 일이었다. 한국 사서분이 하는 투어라기에 양국의 도서관 간의 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이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월의 어느 날 이 사서 분께서 멕시코 한인회로 직접 연락을 하셨다.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에 한국 관련 도서를 기증하는 사업을 진행 하자고 말이다. 알고 보니 이분은 한국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아니라 휴직 중 개인적인 사유로 멕시코를 방문하셨다가 이 도서관에 한국 관련 서적이 너무나 적은 것에 충격을 받으시고는 직업 정신이 발동해서서 직접 도서관에 문의해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것이었다. 멕시코에 거주 중이거나 방문 중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투어를 진행하며 도서관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도서들에 비해 한국 도서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역설해서서 일반인들의 도서기증을 이끌어내셨고, 재 멕시코 한글학교에 요청하여 한국어 교육 교재 기증도 받아내셨다. 한글학교 및 개인 기증자들과 함께 한인회가 기증에 참여하여 100권의 도서를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에 기증하자는 이 사서 분의 건의를 받고 한인회는 다시금 공공외교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재 멕시코 한인회는 1996년 설립되어 현재 재 17대 한인회(회장 장원)가 운영 중이며, 16,000명의 멕시코 거주 한인 동포를 대표하는 기관이자 30,000명의 한인 후손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이다. 한인회의 교육홍보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 이 사업이 할당되었고 한인이 아닌 멕시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이 한인회 예산으로 시행해도 되는지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야 했다.

멕시코의 경우 사회 전반에 있어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은 있으나 이러한 시선이 한국에 대한 이해나 한국 이미지의 긍정으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멕시코 사회에 있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에는 한인회와 한인 후손회 노력의 결실로 멕시코 연방의회가 5월 4일을 ‘한국 이민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2022년에는 “우리 역사 바로잡기 캠페인”을 통해 멕시코 언론이나 행사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위안부 사진의 삭제와 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여 시정하였다. 또한 한인 시민경찰대와 함께 멕시코시티 경찰청에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멕시코에 거주 중인 동포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었다. 이번 도서기증은 일반 멕시코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의 공공도서관 한 곳에 한국 관련도서 100권을 기증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증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도서를 그다음에는 더 많은 도서관에 한국과 관련된 도서들을 기증할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많은 멕시코 시민들이 SNS 같은 단편적인 매체가 아닌 책이라는 정확하고 안전한 수단을 통해 한국에 관한 올바르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도서관에서 투어 가이드 봉사를 하고 여러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하나의 사업을 이끌어내는 그 사서 분에게서 진정한 공공외교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기에 주저 없이 동참할 수 있었다.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은 멕시코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 한국 교민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멕시코시티의 명소이다. 하지만 도서관이 보유 중인 60만 권의 장서 중 한국 관련 도서는 100권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이 중 가장 신간은 2019년에 출간된 정선 아리랑 관련 도서였다. 문학 코너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 문학이 여러 개의 책장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 문학은 한 책장의 1/3도 되지 않았다. 한국 문학 전체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개인의 도서보다 수가 적은 실정이었다. 한인회에서는 개인기증자들의 도서와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재를 취합한 후 부족한 도서들을 조사해서 구매했다. 다만 멕시코에 출판된 스페인어로 된 한국 관련 도서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아마존 등 인터넷 서점을 통해 멕시코로 배송이 가능한 스페인어와 영어로 된 한국 관련 도서들을 찾아 구매했다.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외국어로 된 한국 서적들은 어떤 곳에서 출판을 하는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려면 어떤 종류의 책을 선택해야 할지, 요즘 외국인들은 한국의 어떤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인회 일을 하면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입장만 생각하다가, 이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다.

도서기증 관련 미팅을 위해 도서관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어느 날 도서관 기증 담당자가 “저기 밖에 있는 아이들이 케이팝 댄스를 연습하고 있어”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보니 정원으로 연결된 넓은 통창을 배경 삼아 바깥에서 멕시코 청소년 여럿이 모여 춤 연습을 하고 있었다. 수련회 같은 학교 행사를 준비하던 청소년 시절을 내 친구들과 다들 바 없는 모습이었다. 문을 열고 나가니 익숙한 케이팝이 들렸고 아이들이 나를 보더니 까르륵 웃으며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다. 이렇게 가까이에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멕시코 사람들이 있었구나. 도서기증 사업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 1일 우리는 드디어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에서 기증식을 개최했다. 도서관을 방문한 많은 멕시코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다. 나는 앞으로 이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이 한국책을 찾아보기에 제일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알려줬다. 기증식에 참석한 호세 마리아노 레이바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장은 “이번 기증은 한국을 알리는 프로젝트의 씨앗이 될 것이다. 우리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은 앞으로 한국의 영화, 만화, 문학 등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한류에 대한 멕시코인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열세 살 딸이 얼마 전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왔다고 자랑하는 딸을 자랑하는 어머니와 딸이 함께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딸을 자랑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기증식에서는 한인회뿐 아니라 대사관 및 멕시코시티의 여러 한인단체장들과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장 및 도서관 관계자들이 만나 이 행사를 양국의 상호 협력의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도서관 측에서는 영화 상영, 음악회, 전시회 등 추후 도서관에서 진행 가능한 다양한 한국 관련 문화행사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은 그 자체로도 매우 멋진 건축물이고 단순히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이다. 이 매력적인 곳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날들을 그려보자니 가슴이 설렜다. 한인회와 대사관은 도서관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한국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번 기회에 조사해 보니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인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알리는 홍보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기로 했다.

기증 소식을 접한 한인들과 직접 기증에 참가한 한인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아시아 문학 코너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일본 문학 도서들을 떠올리며 한국문학이 서가를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한인들도 있었고, 손수 한국에서 서한 사전을 구매해 와 기증한 한인들도 있었다. 아르헨티나에 여행을 갔다가 서점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이 스페인어로 번역된 것을 보고 기증하려고 사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 기쁘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에 보람을 느꼈다. 멕시코 한국 문화원에서 한국어 교육 교재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도서관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기증된 한국도서들은 도서관의 신속한 처리로 빠르게 서가에 배치되어 독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기증 담당자는 책 한 권 한 권마다 기증자 이름을 프린트해서 붙여주었다. 도서관의 정원에서는 청소년들이 K-pop 댄스를 연습하고, 새롭게 한국어 강좌도 개설되었다.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은 멕시코시티에서 새로운 한류의 거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증한 책은 겨우 100권이었지만 도서관장님의 말처럼 이것은 한국을 알리는 프로젝트의 씨앗이다. 처음 이 씨앗을 뿌렸던 사서 분은 기증식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셨다. 앞으로 더 큰 나무로 키워내는 일은 온전히 이곳에 남은 우리들의 몫이다. 내년 기증사업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준비는 바로 한국 관련 도서를 모으는 일이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예산 확보가 우선이지만 안타깝게도 멕시코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다행히 두 곳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한국문학번역서 기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스페인어로 번역된 우리 문학을 100여 종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아직 멕시코에 출판되지도 않은 한국 소설들을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다. 어쩌면 이 책들이 멕시코 독자들에게 혹은 멕시코 출판업계에 아주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흥분이 일었다. 대한출판협회에서는 한국도서 해외 전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어로 된 한국의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50종 보유하고 있었다. 협회에서 선정한 도서들이라 믿음이 갔고 이 정도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멕시코 독자들의 기본적인 지적 호기심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기관의 관계자분들은 13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끈임없는 질문의 메일에 친절하게 답해주셨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다. 이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애써주는 분들과 기관들이 있기에 지금의 한류가 만들어진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벌써 200여권의 스페인어와 영어로 된 한국 도서들을 확보했다. 벌써 1차 기증의 두 배가 되는 수다. 도서관 담당자와 1년간의 한국도서 대여 추이를 분석해서 추가로 구매할 도서의 목록도 정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제 멕시코에 있는 한인들의 도서기증을 이끌어낼 차례다.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어떤 책을 구매해 주시면 좋을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좋은 책은 어떤 책인지 틈틈이 목록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고 있다. 올해 초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에 대해 제대로 잘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이 신기하다.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 멕시코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K-POP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한국과 한류는 현지점 멕시코에서는 확실히 대세다. 이 물결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국석에서 작게나마 손을 보태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게 느껴진다.



“ 저는 병아리 외교관입니다.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무관심이라는 말을 깨고
외교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병아리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대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상 후기 인터뷰

Q. 출품하신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한 국가를 알리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음악과 같은 미디어가 큰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 뿌리가 되는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것은 여전히 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공공도서관에 한국과 관련된 도서들을 기증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자 했던 멕시코 한인회의 ‘바스콘셀로스 도서관 기증사업’에 참여한 내용을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Q. 앞으로 공공외교를 위해 활동이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멕시코 한인회의 일원으로서 2023년 1차 도서기증에 이어 2024년 2차 도서기증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양질의 도서를 기증하기 위해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관련도서들을 기증받는 절차를 진행중이며, 멕시코 동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 기증자를 위한 도서기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Q. ‘○○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나는 병아리 외교관이다. 지금까지는 외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도서기증과 공공외교 공모전을 통해 무관심이라는 말을 깨고 나와 한국과 멕시코 두 나라 사이에 대해, 외교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병아리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무력무력 자라나 큰 소리로 한국에 대해 외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레바논 청각장애 아동에게 희망을 선물한 'Happy Miracle'

장려상

개인 수기 / 레바논 정대영

0. 시작하며 :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시작한 레바논 청각 장애 아동 의료지원 사업

고사성어 중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다.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레바논은 한국전쟁 시 우리나라에 당시 약 5만 달러 상당의 전쟁 물자(현재 가치 수억 원 가치)를 지원했던 국가이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레바논보다 경제가 더 발전했고, 2007년에 내전과 전쟁으로 어려워진 레바논에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단(UNIFIL) 소속으로 동명부대를 파병하였다. 현재까지 동명부대원들은 레바논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현지에서 활발하게 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인하대병원이 동명부대원들과 하나의 팀이 되어 청각 장애 아동에게 의료지원 사업을 했던 이야기는 벌써 5년 전의 일이다. 레바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였던 대한항공과 인하대병원 관계자들 모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고,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가슴에 뜨거운 전율이 흐른다. 그 이유는 이 사업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레바논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1. 레바논 동명부대와의 인연

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 버킷 리스트 중 하나가 해외파병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군 생활 동안 해외파병의 기회는 없었다. 전역 후 대한항공에 근무하면서 2018년경 보안업무 벤치마킹을 위해 중동지역 출장을 갔었는데,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후배를 통해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를 업무 협조 차 방문하였다. 전역 후 해외 파병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이 내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동명부대 방문이 설레기도 했다. 동명부대 단장님과 차담을 했다. 우리는 동명부대가 민군작전²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대한항공의 생수, 담요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동명부대 단장님은 현재 동명부대가 레바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지원 서비스가 비상약 정도 지원 하는 수준이니, 한 단계 높은 의료지원 사업을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셨다. 해외파병은 국제협력 증진과 국익 창출, 인류애를 실현하는 장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한항공의 사회공헌활동 취지와도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2. 레바논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넘은 장애물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료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항공에는 의료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진그룹 계열인 인하대병원을 찾아갔다. 그들의 반응은 처음부터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이유는 인하대병원도 이미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고, 또 레바논에 다녀오는 것이 의료진의 긴 공백과 함께 많은 비용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해외파병 부대의 의미와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 외교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렇게 어렵게 인하대병원과 대한항공의 비공식 TF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초청수술에 필요한 항공권은 대한항공이, 의료지원사업에 필요한 것은 인하대병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동명부대의 연락을 받고 힘이 빠졌다. 국방부와 합참에서 동명부대가 이 행사의 주체가 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파병부대 본래의 업무는 평화유지 활동인데, 민간기업과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파병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동명부대 단장님은 주 레바논 한국 대사님에게 대사관이 이번 행사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대사관 내부 직원들 중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으셨던 당시 대사님은 적극 동참하겠다고 승인하셨다. 준비과정도 쉽지 않았다. 레바논에서 사전 협조회의를 하는데, 대사관 소개로 현지 NGO들이 협조회의에 참여했다. NGO들은 초청수술이 아닌 현지수술을 제안했다. 그들은 레바논 의료기술이 한국보다 좋으니,

초청수술 추진을 재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수술로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료장비를 레바논에 가져오는데 제한사항이 많고, 현지 의료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득했다. 동명부대 단장님도 이 행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던 NGO에게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초청수술을 하는 것으로 어렵게 합의를 하였다.

3. 대한항공 - 주레바논대사관(동명부대) - 인하대병원 MOU 체결과 활동

정말 힘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MOU를 체결하였다. MOU를 체결한 이유는 지속적인 활동의 유지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어렵게 추진하게 된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바논 현지에서도 이 행사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레바논 라디오 방송국의 요청으로,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했다. 방송 간 한국전쟁 시 레바논으로부터 지원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취지와 이 행사의 의미에 대해 많은 설명을 했다. 국내 방송에 출연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MOU를 체결한 후 이제 행사를 이행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준비는 의료진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하대병원에서 많은 준비를 하였다. 출장 보낼 의료진 선발과 준비를 맡았고, 대한항공에서는 동명부대와 협조를 통해 사회공헌활동 현장에서의 안전대책을 준비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하대병원 측과 초청수술 종목을 선정하였는데, 수술 후 부작용이 덜한 청각질환으로 결정하였다. MOU 체결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행사의 진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먼저, 초청수술을 위해 레바논에 인하대병원 의료진이 가서 초청수술 후보자를 진료한다. 그리고 초청수술 대상자를 선별한 후 통보한다. 그 다음으로 초청수술 대상자와 보호자 1명을 함께 초청한다. 마지막으로 초청수술 후 한국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항공과 인하대병원 측은 각각 진행 경과에 따른 업무분장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4. 레바논 청각장애 아동 초청수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동명부대 방문

초청수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인하대병원 의료진과 함께 다시 레바논 동명부대를 방문하였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레바논 아이들이 보호자의 손을 잡고 겁을 잔뜩 먹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료진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시작하였다. 일부 아이들은 겁을 먹어 울기도 했고, 보호자들은 아이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초청수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진료는 모두 끝났다. 동명부대에서 대사님과 동명부대 단장님 그리고 의료진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오랜만에 군대에서 한 식사가 정말 맛있었다. 대사님은 지속적인 행사가 되기를 당부했다. 그리고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령관인 이탈리아 장군을 만났다. 사령관님은 유엔이 민군작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리가 떠나기 전, 동명부대 단장님은 대부분 유엔 군들이 레바논에 금전적인 지원 사업을 하는데 비해, 우리의 활동은 레바논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사업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나를 포함해서 의료진 등 이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감동과 보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다.

5. 레바논 청각장애 아동 초청수술

이제 초청수술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여아와 남아 총 2명을 선발하였다. 동명부대에서는 선발되지 못한 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찾아가 위로의 인사를 건넸다. 드디어 초청수술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다. 동명부대에서 인솔자와 통역자를 지원해 주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초청수술하시는 분들의 숙소와 병실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초청수술 기간이 마침 이슬람의 중요한 의식인 라마단 기간과 겹쳤다. 음식도 할랄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인하대병원에서는 방문자들을 위해 할랄음식을 계약하기 위해 병원 주변 식당을 찾았다. 그러나 근처에 할랄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다행히 인하대병원 식당 영양사님이 우리의 애로사항을 듣고, 할랄음식을 별도로 직접 만들어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우리와 문화가 달라서,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한숨을 돌렸다. 드디어 레바논 청각장애 아동 식구들이 동명부대 인솔자와 함께 한국에 왔다. 초청수술 대상 아이들과 보호자들은 처음에 많이 긴장하고 부담스러워했으나 점점 적응하였다. 인하대병원에서는

수술 기간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주 찾아가 위문도 하였다. 청각 수술도 무사히 진행되었고, 진료과정 모든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레바논 청각장애 아동들의 부모들은 세심한 배려에 감사해했고, 수술 결과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전날, 하루 일정으로 한국 관광을 지원하였다. 덕수궁과 서울 스카이 방문 등으로 일정을 세웠다. 그들은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서울 스카이에 올라가서 서울을 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한국의 과거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들은 감사함과 감동을 가지고 레바논으로 돌아갔다. 우리도 뿌듯함을 느꼈다.

6. 'Happy miracle'로 감동을 나누다

레바논 아이와 보호자들은 돌아간 후 두 달쯤 지나서 연락이 왔다. 여자아이가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어느 순간부터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심지어 여자아이는 말이 너무 많아져서, 집안 어른들이 시끄러울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인하대병원 관계자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달하였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들 모두 너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다른 의료지원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자고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을 'Happy Miracle'이라고 호칭했다. 동명부대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의 활동이 레바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대부분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들이 막대한 자본 지원에 열을 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는 레바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것이 다른 나라의 유엔평화유지군보다 민군작전에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이번 행사의 계기로 레바논에서 한국군의 평판이 더 좋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수술 후 레바논으로 돌아간 아이와 보호자들이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7. 계속되지 못한 아쉬움, 그러나 희망을 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레바논 소외계층 장애 아이들의 의료지원을 하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초기에는 이런 상황이 오래갈 줄 몰라서, 동명부대가 교대할 때 찾아가 우리의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코로나 상황은 종결되었으나, 이번엔 나의 업무가 변경되어 더 이상 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관계자와 나 포함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그때의 감동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관계자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레바논에서의 우리의 감동을 함께 나눈다. 아직도 가끔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없는지 동명부대에서 문의가 오기도 한다. 그리고 레바논 현지 사람들도 우리를 기다리는지, 가끔 SNS를 통해 연락이 온다. 나도 너무 아쉽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레바논에 희망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 믿는다. 레바논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한다.

¹ UNIFIL(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단은 레바논 내전과 이스라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1978년 3월 안보리에 의해 창설되었음.

² 민군작전 : 군사작전의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부대와 정부, 비정부기구 및 주민과 관계를 구축, 유지, 확대하는 활동을 의미함.



저는 글로벌 항공사에서 전 세계와 공감하는
공공 외교관입니다.



수상 후기 인터뷰

Q. 출품하신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레바논에서 대한항공과 인하대병원이 레바논에 있는 청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한 내용인데요. 그 과정에서 주 레바논 한국 대사관과 또 파병 나가 있는 동명부대와 함께 의료지원 사업을 했던 힘들었던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Q. 이번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A. 처음에 공공외교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수기를 쓰면서 '이런 게 공공외교고 국가의 위상이 제고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희도 공공외교인지 모르고 하면서도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앞으로 공공외교를 위해 활동이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재 확정된 건 없지만 레바논에서의 활동이 코로나로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받은 상금은 인하대병원에 전부 기부할 예정입니다.

Q. '○○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글로벌 항공사에서 전 세계와 공감하는 공공 외교관입니다.

한국은 []이다.

장려상

단체 UCC / 중국
북경대학교한국유학생회



작품 설명

북경에서 유학생으로 생활하면서 한국의 음식, 예술문화, 아름다움을 알리려 활동으로 축제에 참여했던 내용을 UCC작품으로 출품



저희는 작은 한 부분의 외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학교, 지역에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수상 후기 인터뷰

Q. 출품하신 당선작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공모전에서는 저희 학교 대표적인 행사인 '국제문화제'의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국제문화제는 현재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행사로 각 나라 유학생들이 나라를 홍보하고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대표적으로 K-뷰티, 한국의 전통공연, 한국 음식, 그리고 한글을 전파했습니다.

Q. 이번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한 계기가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애국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참여한 행사가 나라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다 보니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장점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로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부스를 담당했다는 상장도 받았습니다.

Q. 앞으로도 공공외교를 위한 활동이 계획되어 있나요?

A. 다음 학기에 있을 한중교류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한중교류회란 중국 학우분들과 학술적인 교류를 하고 서로의 문화를 알리고, 한중의 우호적인 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작은 한 부분의 외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다 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학교에서, 거주하는 지역에서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토평&아마쿠사 국제교류

장려상

단체 UCC / 일본
토평고등학교



작품 설명

2018년도부터 진행된 온, 오프라인 국제교류 활동에 의미를 느끼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아 UCC 작품으로 출품



저희는 함께하는 외교관입니다.
넓은 세상을 함께 경험하면서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후기 인터뷰

Q. 이번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한 계기나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 학생들과 교류활동을 하면서 10월에 일본 친구들이 방문을 해서 정신없던 시기에 학생들이 알려준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10월 28일에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여유가 생겨 학생들이 말해준 공모전이 생겼었고, 마감일이 31일임을 인지하고 출품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그동안 모아놨던 사진들을 정리하여 UCC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청소년들의 교류활동을 진행하셨는데, 수상자님이 생각하시는 '교류'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 교류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노크하는 것이 교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안에서 개개인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Q. '○○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넓은 세상을 함께 경험하면서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외교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정직의 상징입니다.

장려상

단체 UCC / 방글라데시 코이카 방글라데시엔젤스

1. "선생님, 저에게 또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선생님, 저 꿈 또 있어요.", "뭐예요?", "방글라데시 사람에게 한국 노래 가르칠 거예요.", "왜요?", "한국 노래 정말 좋아요. 말 예뻐요." 마이멘싱 TTC에서 EPS-TOPIK을 공부하는 지아(Zia) 씨는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요즘 꿈이 하나 더 늘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 음악을 공부해 방글라데시에 돌아와서는 한국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는 지난 한국어 노래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았다. 요즘 지아 씨는 한국 노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으며 한국 노래에 푹 빠져 있다. 매일 한국어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다. 지아 씨가 한국어 노래를 처음 접해 본 것은 마이멘싱 TTC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틀어준 음악을 통해서다. 매스컴이나 인터넷 활용이 그리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EPS-TOPIK 시험에 합격해 빨리 한국으로 취업해 갈 생각이 조금씩 한국 문화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지친 현실에 밀려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KOICA 봉사단에서 TTC에 한국인 교사로 온 최 선숙 선생님을 통해 수업 중간중간에 듣는 한국 문화와 한국의 영상, 한국 노래는 꿈의 세계처럼 보였다. 게다가 지난 9월 21일 다카에서 열린 한국어 노래대회에서 본 풍경은 충격과 감동이었다. 방글라데시의 7개 도시에서 모인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희망과 열정에 찬 모습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한국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풍성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 제시간에 착착 진행되는 질서정연하고 깔끔한 마무리.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이런 나라에 가서 배우고 싶다.'

2.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방글라데시 엔젤스'

무모한 도전이었다. KOICA 프로젝트 봉사단으로 올해 1월 16일 방글라데시에 파견된 7명의 봉사단원들에게 주어 진 임무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위해 EPS-TOPIK 시험을 준비하는 TTC의 한국어반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현지인 한국어 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일이었다.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그들은 임무 수행을 위해 EPS-TOPIK 교재를 PPT와 교안으로 만들어 상향 평준화된 교수법으로 교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이었다. 거기다 우리 단원들의 과도한 열정이 더해져 학생들의 예습 복습과 정확한 발음을 위해 '아차, 코리아 자보'라는 유튜브까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EPS-TOPIK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2000개의 EPS-TOPIK 연습 문제까지 한 개씩 PPT로 만들어 별도의 EPS-TOPIK 문제 풀이반까지 운영했다. 매일매일 오전 오후 운영되는 수업량만으로도 하루가 벅찼다. 그러나 7개 도시의 임무지로 파견되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방글라데시의 문화와 그 문화가 형성된 환경을 이해해야만 했다.

무더위와 우기라는 자연환경, EPS-TOPIK 응시자 선발 방법, 절대적인 종교적 생활리듬, 가난과 실업률로 인한 좌절감..... 그래도 희망을 찾고자 TTC 한국어반을 찾아온 청년들은 의식이 깨어있다고 봐야 했다. 그럼에도 당연한 듯 반복되는 지각과 결석, 그것은 곧 쉽게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습관화된 좌절과 맞물려 있었다. 그 마음을 먼저 희망과 열정으로 채워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우리가 먼저 열정을 보여주고, 우리가 먼저 내어주고, 우리가 먼저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먼저 뭐라도 보여주자. 미안해서라도 힘을 내 따라 하도록.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꿈의 나라, 한국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일곱 명의 봉사단은 각자 임지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는 '뭐라도' 했다. 한국 문화 체험으로 삼계탕을 끓여 먹이고 김밥을 싸서 먹이고 떡볶이를 만들어보고 제기차기도 윷놀이도 투호놀이도 한국 영화 보기도 하며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정기적인 줌 회의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공유하며 우리들은 나날이 교육의 질을 높여 갔다. 다카 BK TTC 신직수 단원, 마이멘싱 TTC 최선숙 단원, 나라양간지 BIMT 윤주는 단원, 꾸밀라 TTC 임숙경 단원, 파브나 TTC 김성린 단원, 라즈샤히 TTC 장선경 단원, 룽푸르 TTC

이덕우 단원은 날마다 임지에서 방글라 청년들과 한국어로, 한국 문화로 교감을 이루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선숙 단원의 "우리 다 함께 협력해서 7개 TTC 학생들이 모두 모여 한국어 노래대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듣는 순간, 우리 봉사단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7개 TTC가 모두 모일 수 있는 행사장이 있을까, 교통이 안 좋은 현실에서 수업도 수시로 결석하는 학생들이 과연 지방에서 다카까지 올까, KOICA에서 지원해 준다 해도 예산이 부족할 텐데, 학생들 차비는, 숙박비는, 점심에는 한국 음식 체험도 해야 하는데 고작 우리 7명이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이동하거나 행사장이 혼잡하여 혹시 사고라도 나면.....' 그 정적 속에 봉사단원들의 머릿속에는 행사를 하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혼란스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무모한 도전에 불씨는 당겨졌다.

3. 방글라 청년들에게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즐기게 하자.

한국어 노래를 접하게 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 부수적으로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아는 방글라데시인을 확대해 한국인과 소통하는 방글라데시 만들기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노래대회를 한 번 해 보자는 결의는 바로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난관은 곳곳에서 우리의 행동을 막아섰다. 8월에 계획을 확정하고 11월에 실시하려던 계획이 갑자기 9월로 당겨졌다. 방글라데시는 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정국이 불안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국에서 공수해 와야 하는 물건들을 이동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다카 행사장 마련과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고 찾아와줄 사람도 필요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7명이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방에 각자 따로 거주하면서 만나는 것은 온라인에 의한 만남뿐이었다. 우리는 각각 너무 멀리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실제 준비 시간은 20일에 불과했다.

[2023 방글라데시 TTC 한국어 노래대회, 2023. 9. 21. (목) 10:00, 장소: 다카 BK TTC]

최선숙 단원이 작성한 계획서가 KOICA 본부에서 통과되자 임숙경 단원의 재빠른 솜씨로 온라인에 유포될 포스터가 만들어졌다. TTC 별 온라인에 올려지고 신청자 접수가 시작됐다. 20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 마음은 바빴지만 이곳 방글라 사람들은 늘 여유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인살라 방글라데시에서 '과연 20일 만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한국어 노래대회를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 속에서도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7명은 역할을 나누어 준비에 돌입했다. 한국어 노래대회, 한국 문화 OX 퀴즈, 한국 문화 체험으로 한복 입기, 한국 음식(떡볶이) 체험, 한국 놀이 체험으로 제기차기 대회가 준비됐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각자 임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만드는 작업들이 시작됐다. 행사장 공간 활용과 음식 분량을 예측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자 접수를 받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약속을 잘 지킬 수 없는 현지 실정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어 노래대회 참여자는 7명의 단원들이 근무하는 TTC에서 예선을 거쳐 2명씩 선발하기로 했다. 제기차기도 TTC 별 예선을 통해 5명을 선발했다.

한국어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노랫말을 통해 한국어 뜻을 알려주자 학생들은 노랫말이 아름답다며 좋아했다. 그렇게 몇 곡의 한국어 노래를 가르치고 나자 예선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 늘어났다. 7개의 TTC에서 조용히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예선은 뜻밖의 큰 행사가 되고 말았다. 교장선생님이 참석했고, 일본어반과 영어반 학생, 선생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교장선생님은 인사를 통해 "한국어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만큼 한국 문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다카 BK TTC의 신직수 단원은 행사장을 알아보고 다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을 마련하느라 수업이 끝나고도 발에 땀이 나도록 늦은 밤까지 돌아다녀야 했다. 파브나 TTC의 김성린 단원은 500인분의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 한국 재료를 택배로 구입해 양념을 만드느라 가르치는 제자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양념 만들기과 씨름을 해야 했다. 룽푸르 이덕우 단원의 제기차기 규칙이 만들어지고 규격화된 제기가 각 TTC에 알려지자 TTC에 파견된 단원들은 제기를 직접 만들어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라즈샤히 장선경 단원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OX 퀴즈 100개를 만들어 미리 참여자들이 한국문화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OX 정답을 따라 이동할 때 혼잡해 사고라

도 날까 염려하여 폴리스라인을 만드는 세심함도 보였다. 나라양간지의 윤주는 단원은 한복 체험을 위해 한복을 빌리고 포토존의 멋진 한국 배경 사진을 찾느라 눈이 충혈되기도 했다. 최선묵 단원은 행사 전체의 기획은 물론 행사 당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작은 것까지 체크하고 챙기느라 밤잠을 설쳤다. 임숙경 단원은 참여자들의 이름과 인원을 수시로 체크하며 사회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연습했다. 그렇게 각자 임지에서 초읽기를 하며 행사 준비에 분투하는 사이 그날은 다가왔다.

4. 한국이 하면 뭔가 다르다

9월 21일 오전 10시, 드디어 '한국어 노래대회'의 막이 열렸다. 행사를 위해 우리 단원들은 전날 다카에 집결했다. 전일에 다른 행사가 있어 치워지지 않은 행사장을 먼저 청소하고 행사 중 학생들의 동선을 예상하며 무대 시설과 좌석 배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폴리스라인 설치에 돌입했다. 단원들은 힘을 모아 직접 청소를 하고 플랜카드를 달았다. 맛있는 무대에 경복궁 사진을 중앙에 세우고 전날 다른 사람들의 행사에서 버려진 풍선을 모아 무대를 장식했다. 참석자들의 한복 문화 체험과 포토존을 위해 한복 등신대와 한국 문화 포토월을 세웠다. 한국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떡볶이를 만들 준비를 완료했다. 한국에 대한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한국에서 공수해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기념품으로 김홍도의 '서당' 그림을 전면에 새겨 넣은 면 티셔츠와 한국 민속 열쇠고리를 준비했다.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옷의 크기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밤잠을 설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고 연습했다. 우리가 행사를 위해 전체적으로 만난 것은 행사 전날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놓친 것이 없도록 체크했다. 한국이 하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다. 관건은 행사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냐는 것이었다. 강당의 의자는 400석, 떡볶이를 위해 500개의 그릇을 준비했지만 오전 9시 노래대회 참가자 순서 뽑기가 시작되도록 참가자의 반은 오지 않았다. 걱정 속에 10시가 다가오자 행사장을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다. 가장 먼 지역의 세계 TTC 학생들이 10시가 조금 넘어 들어서자 강당은 가득 차 일부 참석자들은 자리가 없어 서서 행사를 구경해야만 했다. 무대 위에서 학생들은 평소 연습 이상으로 실력을 발휘했다. 방글라데시의 전국 곳곳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한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한곳에 모여 함께 한국 노래를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흥분했고 열광했고 강당은 후끈 달아올랐다. 흥을 이기지 못한 친구들은 무대 전면으로 뛰어나와 함께 춤을 추며 즐겼다. 강당을 꽉 채운 열기는 TTC 전체로 퍼져나가 급기야는 TTC의 다른 과 학생들이 '뭔 일이야' 하고 들렀다가 눌러 앉아 새로운 관중이 되었다. 이날 노래 대회 참가자는 16명, 제기차기 대회 40명, 한국 문화 OX 퀴즈 400명, 한국 음식 체험에 550명이 함께 했다. 모두 한국 음악,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 한국어 노래대회를 즐겼다.

5. "한국은 우리들에게 정직의 상징입니다."

한국어 노래대회가 끝나고 각자의 임지로 돌아온 단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노래대회 내년에도 하나요?"이다. "왜요?", "내년에는 저도 한국어 노래 연습해서 꼭 나갈 거예요." 학생들은 그날의 열기와 감동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한국어 노래를 흥얼거린다. 새로운 한국노래를 공유하며 노래 연습을 한다. 한국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어 공부에 전과 다른 열정을 보인다. 노래대회에 참여했던 학생은 학생대로, 응원했던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 문화와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9월에 한 한국어 노래대회 여파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초청 내빈들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음에도 질서 정연한 모습에 놀랐으며 방글라데시에서 보기 드문 질서정연한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의 참여 열기와 응원 등 젊은이들의 열정을 보고 방글라데시에 한국어 열기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도 전했다. 노래대회가 끝난 후엔 SNS가 후끈 달아올랐다. 학생들의 SNS를 통해 많은 사진과 동영상도 유포되었으며 유튜브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2,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나타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지역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 한국어 노래대회를 보도한 신문도 생겼다. 행사 후 한 학생의 말이 가슴을 울린다. "한국은 우리들에게 정직의 상징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있어요. 한국이 하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었지만 이제는 한국에 가서 배우고 싶어요."



저희는 열정 외교관입니다.,
방글라데시가 덥고 힘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도 되게 귀감이 되거든요.



수상 후기 인터뷰

Q. 출품하신 당선작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방글라데시 단원분들이 방글라데시의 각 7개의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가르친 수제자들을 모두 다 모아서 수도인 다카에서 한국어 노래 경연 대회를 한 경험을 수기로 적어서 출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참여 계기나 소감에 대해 들으신 내용이 있나요?

A. 저희 방글라데시 단원분들이 정말 열정이 많으세요. 연령이 50대에서 60대의 단원분들이신데 봉사 대상이 어린 학생이라 그런지 아이들을 아끼시고 좋아하셔서 '한국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연 대회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떡볶이도 만들어서 나누고 제기차기 놀이 등 다양한 한국 문화들을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Q. 앞으로도 공공외교를 위한 활동이 계획되어 있나요?

A. 저희 봉사단원 분들께서 지금은 2월로 봉사 끝나시는데요. 지금 방글라데시 행사가 잘 되어 방글라데시 현지 학생분들도 벌써부터 내년 노래 대회를 준비를 하고 싶으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것처럼 봉사단원 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Q. '○○외교관'이라는 콘셉트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채워줄 수 있는 단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희 단원분들은 열정 외교관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방글라데시가 되게 덥고 힘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도 되게 귀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분들을 열정 외교관이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상식 사진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집**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수행처 채널투씨코리아 주식회사

제작/기획 김민수(채널투씨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박세희(채널투씨코리아 주식회사 AE)

디자인 김지영(채널투씨코리아 주식회사 선임디자이너)

* 본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외교부에 있으며, 내용을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집”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교관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집

